|  |  |  |
| --- | --- | --- |
| **1과** | **새가족부 성경공부** |  |
|  | **화평케 하신 예수님** |
|  | 본문 / 에베소서 2:12-18 |

**보혈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마다 보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늘, 항상 보혈을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예수님을 당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누기 전에 함께 다 들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크게 말하라고 얘기한다. 여러 지체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고백이라는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룬 본문이 있다고 말한 후 마태복음 16:13-17으로 넘어간다.

2. **마태복음 16:13-17**절에는 예수님을 향한 두 부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분을 인격적으로 알던 제자들(베드로) 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베드로의 고백은 각각 무엇이었으며, 왜 그러한 고백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14절

🟆베드로: 16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소를 거론하면서 현 시대도 동일하게 우상과 권력의 강도가 크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고백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지, 순탄하게 길이 열릴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신앙인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대화의 장소** - 가이사랴 빌립보 :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90km 떨어진 헤르몬 산 근처의 성읍으로 특히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토착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 즉 풍요를 상징하는 판(Pan)의 신당을 지었으며 헤롯(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가이사랴'라 하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절대 권력이 자리잡고 있는 장소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①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야로 고백한 것은 예수의 신분을 증거한 것으로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자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②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그분의 신적 속성을 증거한 것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의 차이

**[객관적↔주관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인 모습과 소문으로 예수님을 추측했지만(객관적),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의 실체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주관적)

|  |
| --- |
| J.I 패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분을 직접 만나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인본적 노력과 지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며 은혜입니다. |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에 담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8)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7)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의 지식을 넘어 마음의 지식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와 머리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며 이는 반드시 신앙의 체험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얘기한 후에 진실하고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고백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이는 전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마무리를 짓는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에베소서 2:12-18**

1.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12절)   
  
🞴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2)  
  
-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 이방인

-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  
-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없음  
-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 여러 신들을 섬겼으나 참 하나님은 없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 : 에베소서 2:1-3 말씀을 읽게 한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 땅 위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는 자,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함,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지름.

2. 다음 말씀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9:2 죄의 원인  
  
🞴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2)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 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으로 만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온 우주만물의 대표자로 창조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물론 모든 피조물까지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꽂이의 꽃은 아름답고 귀하기에 중요한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살았다고 하여도 단시일 내에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로부터 잘리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뿌리가 단절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27 죄의 결과  
🞴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요한계시록 21:8 죄의 결과 (함께 묶어서 설명한다)  
🞴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  
🞴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a)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  |
| --- |
| **묵상** |
| **당신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육체적인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애 끝에 누구나 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은 생존해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지옥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계 21:8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B.C(Before Christ, 영어)와 A.D(Anno Domini, 라틴어)  
교육간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자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자신의 먼저 시작해도 좋다.

특별히 모태신앙인에게는 이런 유형의 질문으로 대처한다.

“성도라면 **인생의 전환(U 턴)**을 가져온 간증거리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3.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까?(13절)   
  
🞴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3)  
🞴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을 뜻하므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인 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  |
| --- |
| **묵상** |
|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

정수장에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물을 사용해서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5:14)  
 **[알림]** 답변으로 상당히 긴 설명을 요구하는데, 교육의 한정된 시간으로 핵심만 정리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의 감독과 봉사와 회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속죄 의식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동일한 연약함을 지닌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좇아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불러 세우신 하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7:27)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빽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모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1번씩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19) 예수님의 피로 인해 자류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14-16절)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4-16)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툼이나 미움으로 관계에 금이 가는 곳에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 한 대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완전히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은 교직원들과 전교생을 모았습니다. 총장님은 이번 분규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의 왼팔을 걷어올렸습니다. 굵은 벚꽃나무 막대기로 자신의 왼팔을 계속 사정없이 세게 내려쳤습니다. 막대기는 꺾어지고 팔에는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총장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 앞자리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로써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입은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롬 14:19)  
  
5.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7)

평안입니다. 평안은 다른 말로 평화, 화평, 평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으로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멀어졌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까워지는 평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Spafford)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변호사이며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런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한번은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객선 하브호가 영국 배와 충돌해 2백26명이 익사하는 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스패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입니다.   
  
**[알림]** 교육간사는 교육생 한 명에게 찾게 하여 가사만 읽게 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  |
| --- |
| **묵상** |
| **기드온이 처음 고백했던 ‘여호와 살롬’(사사기 6:22-24)의 의미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 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6:33 |

🞴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 6:22-24)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명과 확신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뿐 아니라 시험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로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서 기쁨의 자유를 얻은 기드온은 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안의 광명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강도입니다. 수형수 명단에 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호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신은 사형수 명단에 ‘31번 이성문’인데 1번부터 30번까지 차례대로 이름을 불렀는데 31번은 건너뛰고 32번을 부를 때 느끼는 기쁨, 죽음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다음 말씀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요 14:27,16:33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말에 무척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홀로 남은 존재처럼 허탈감과 장래의 두려움에 빠져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고난과 역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  |
| --- |
| **적용** |
| 🟆당신이 느끼는 평안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영향이란 진로, 결혼, 시험, 질병, 관계, 직업, 두려움, 게으름, 불투명한 미래, 죄 등등 평안을 유지하고 주장하는데 어떤 요소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누면 된다.  🟆나의 삶에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답변이 기도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만든다.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누도록 한다. |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기에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기에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겨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 한 병사가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장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때마침 크리스천 군의관이 그 젊은 병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려.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라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그런데 이 병사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 수술을 시작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 영혼은 평안합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고향에 계신 제 어머니께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고난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첫째,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욕심는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열심을 내야합니다.

둘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안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2과 | 새가족부 성경공부 |  |
|  |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
|  | 본문 / 디모데후서 3:15-17 |

**성경을 읽읍시다. 처음에 성경이 쓰여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처음에 의도된 대로 성경말씀에 사로잡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흔들리도록 성경을 읽읍시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다 나눈 후에는 ‘드와트 무디’가 했던 말을 거론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 드와트 무디

|  |
| --- |
| **[계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크게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눕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계시를 말하며 **특별계시**는 일반계시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도된 직접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

계시의 원어적 의미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입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려면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인간을 자신에게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구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계시:

① 자연 - 우주 천체의 질서 정연한 운행, 계절의 변화, 각종 생명들의 탄생과 성장

② 마음 - 선을 지향하고 악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양심

③ 역사 -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진행되었던 역사속의 여러 사건들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것으로,

그 안에는 꿈과 환상, 음성, 기사와 표적, 예수 그리스도 등이 있습니다.

3. 성경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중 어느 계시에 속할까요?

🞴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롬 16:25,26)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계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특별계시인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디모데후서 3:15-17**

1.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5절, 참조 요한복음 5:39)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2.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구약은 39권으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크게 5권의 역사서와 22권의 서신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별되었지만 신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계시"** 입니다.

|  |
| --- |
| **묵상** |
| **큰맘 먹고 성경통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구약성경은 내용도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을 쉽게 읽는 한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 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구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가 시작됨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 성막 제사법으로 십자가의 대속, 광야의 놋뱀 사건 등등 매우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3장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①여자의 후손 -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②머리를 상하게 함 -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  
③발꿈치를 상하게 함 -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구약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창세기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6절. 참조 베드로후서 1:21)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1)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40여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는 약 1,600여년간이며 농부, 어부, 왕, 법률가, 의사, 정치가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으나 성경 전체의 흐림이 한 가지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 과정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보충설명]** 성경의 유기적영감과 완전축자영감, 성경의 원본과 사본, 성경의 구조, 시대 구분, 정경과 외경 등등 성경의 궁금한 사항은 신앙서적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간사는 안내한다.

4.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6b-17)

🞴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b-17)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삶과 신앙교육 관련 교재 중에서 최고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105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1번째는 **등대 역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캄캄한 방에서 사물을 분간하려면 후렛쉬, 촛불과 같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캄캄한 내일을 비취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9,11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2번째는 **유혹을 이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9,11)

유혹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럼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혹은 찾아올 수 있기에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75%정도가 운전자의 방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으니 자심감이 생겨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앞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깜박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달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8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너무 끔직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교통사고에는 면역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에 면역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간사도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에 늘 담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 4:3)

◎술의 유혹을 받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8)

◎뇌물의 유혹을 받을 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 23:8)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27:24)

🟆에베소서 6:17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3번째는 **영적 무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7)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적이 공격해 올 때 칼집에서 칼을 빼야 하는데 이건 녹이 슬어서 안 빠지고 온 힘을 다해 뺏더니 칼날은 이빨이 빠져있고 하도 오랫동안 안 갈아서 마치 나무막대기가 되어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관리해야 합니다. 닦고 숯돌에 갈고 기름 칠하여 언제든지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손 예화 (엄지손가락 / 검지 / 중지;가운데손가락 / 약지 / 새끼손가락)   
  
**말씀을 들을 것 / 읽을 것 / 공부할 것 / 암송할 것 / 말씀을 묵상할 것**

24시간이 지난 뒤에 당신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것은 5%, 읽은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 암송한 것은 100%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  |
| --- |
| **묵상** |
|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이전에,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친근한 두 개의 단어(‘하나님의 감동’,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참조. 히브리서 4:12)**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조. 욥기 23:12)** |

●하나님의 감동

사도 바울은 (딤후 3:16)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떼오프뉴마토스"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떼오(스)"와 성령(영), 또는 호흡을 의미하는 "프뉴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게해서 그 뼈를 큰 군대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결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 4:12a)

물고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물이 아닌 땅바닥에 놔두면 팔딱팔딱 뜁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경말씀이 쓰여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4,15)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그 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하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김치 냄새를 풍기고 싶다면 김치를 먹어야 하고 불고기 냄새를 풍기고 싶다면 불고기를 먹어야 하듯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싶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 23:12)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은 커녕 아무런 지장도 없지는 않습니까?

5.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신명기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람의 인체는 이상하게도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약해집니다. 비만증에 걸리고, 신경이 둔탁해집니다. 특별히 운동이 없으면 성인병에도 걸리기 쉬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등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마라톤하는 사람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여러 시간 동안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달려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체내에 있던 악한 병균이라든지 그 외에 좋지 않는 불순물이 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약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비결은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앎에서 그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라도 아는 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
| --- |
| **적용** |
| **🟆당신이 말씀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욕심, 게으름, 유혹, 나태함, 분주함, 의욕상실 등등  교육간사는 본인이 스스로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준다.  **🟆당신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생이 형식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말씀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삶은 아직 영이 아닌 육에 가까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호흡)으로 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  |  |  |
| --- | --- | --- |
| 3과 | 새가족부 성경공부 |  |
|  |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
|  | 본문 / 사도행전2:37-42 |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귀히 여길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교육간사는 교회 정의와 좋은 교회를 차례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이끈다.

2. 다음 말씀들을 찾아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성전은 전이스라엘 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도 각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하시므로 이제는 성도의 각 인격이 모두 구약 시대의 성전과 같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집단,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정의 – 성도들의 모임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 하면 건물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기보다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란 단어는 신약성경에 115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2번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과정의 인생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고 특별히 약한 자를 세우며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하나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움으로 지어져 갈 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1)

|  |
| --- |
| “교회”에 관한 성경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구약은 “불러모으다”라는 뜻의 동사 “카할(회중,집회)”이라는 단어가, 신약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 “에클레시아”가 사용됩니다. 교회란 한 마디로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말고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을 강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

▲위 사항을 한 번 읽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사도행전 2:37-42**

1. 교회란 성령을 받은 사람 곧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8절)

🞴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저마다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보니 자신들이 소망으로 기다려 온 메시야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심에 가책을 받아 큰 근심에 잠기게 되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집사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도 동일하게 마음이 찔리게 되었지만 이를 분노로 표출했던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회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란 「잠긴다, 적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를 가리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림]** 죄사함은 세례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온 것입니다.  
**[참고]** 참고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온 사도행전에는 그 외에 성령을 받게 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행 11:17) 성령을 받게 됩니다.

2.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참조. 고린도전서 12:3)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종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럼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신의 주(Lord)와 구주(Savior)로 고백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  |
| --- |
| **묵상** |
|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교육간사는 초대교회를 떠올리면 다가오는 느낌이나 인상이 무엇인지 교육생 한 명당 하나씩만 얘기하도록 이끈다.  예) 공동생활, 기사와 표적, 오순절 성령 강림, 강력한 부흥, 합심기도, 순교,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도, 복음증거, 환난과 핍박 등등 |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박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 11:36,37)  
  
교회사를 보면 AD 54년 네로 황제로 시작해서 303년 디오크레 티아누스 황제까지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주일예배 때 『 터키선교 순교이야기 』라는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터기에서 순교를 했던 틸만 선교사, 네자티 목사, 우르르 형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트야에서 성경배포사역과 문서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해 의자에 묶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칼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자티 목사는 99번, 독일인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로 찔렸으며 우르르 형제는 그 찔린 횟수를 셀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잘났으며 코와 입과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어 벌려 놓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들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내었습니다.

3.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39-41절)

🞴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39-41)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이 중에서 본문은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본문의 ‘증인’은 원어상 ‘순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정신으로 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  |
| --- |
| **묵상** |
| **당신은 평소 선교의 사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를 통한 특별한 유익이나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교육간사는 우선, 삼일교회에서는 어떤 선교가 있는지 하나씩 얘기하게 만든다.  
[장흥, 사천, 목포, 통영, 제주, 동해, 대만, 일본, 미얀마, 군선교, 의료선교, 농어촌선교]

그리고 선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은혜를 먼저 나누게 한다. 끝으로 선교 경험이 전혀 없었던 분들에게 평소 선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나누게 한다.  
  
여름과 겨울에 있는 삼일교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교육간사는 본인이 경험했던 선교를 열거하면서 선교의 영광과 축복을 나누어 준다.

4.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2절)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복수형,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기 주어진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력했지만 그 메시지는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구약성경 및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은 평생 학습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 5:12)

예수님을 믿은지 오래 되었다면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삼일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팀의 간사나 리더 등과 같이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이 위치에 서서 앎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제   
  
신앙이란 바른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타는 석탄은 결코 뜨거워질 수 없듯이 홀로가 아닌 더불어의 교제가 있어서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히 12:26)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웃고 울 수 있습니다. 교제권에 있으면 자신이 침체되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밧데리가 죽었을지라도 연결 케이블로 살아있는 밧데리와 연결시키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늘 즐겁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등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참아주고 품어주며 먼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겪을 때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과 정죄의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기질,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전화나 문자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격려와 위로로 용기를 북돋아 줄 이가 누구인지, 몸이 아픈 지체가 누구인지, 밥을 함께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지체가 누구인지 알고 사역자의 의식과 자세로 도움을 주는 것이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떡을 뗌   
  
이 말은 단순한 친교적 식사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즉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빵과 포도즙을 먹습니다. 이는 떡과 잔인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그럼으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것입니다.  
  
🟆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삽질이고 기도는 포크레인입니다. 하루 세번 이를 닦기 위해서는 총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적은 시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왔는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1:35)  
  
▲위의 말씀을 찾아 읽고 삼일교회 새벽기도를 소개하고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
| --- |
| **적용** |
| **🟆현재 당신은 교회 안의 교제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육간사는 팀이나 목장 모임에 연결이 되었는지 참석은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교육간사는 팀이나 목장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생 2명에게 질문을 하되,  한 명에게는 교제의 방해 요소를, 다른 한 명에게는 교제의 유익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끈다. |
|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충분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이트리히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생활]中** |

기독교의 고전, 「신도의 공동생활」은 신앙생활이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가 아닌 더불어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본회퍼는 교회를 "사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신데, 이 사귐은 섬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부흥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부흥을 감당할 만큼 내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덩달아 좋아지리라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함으로 인해 내가 속한 교회공동체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교회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섬김의 교제를 만들며 선교에 힘쓰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1-8**

|  |  |  |
| --- | --- | --- |
| 4과 | 새가족부 성경공부 |  |
|  |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
|  | 본문 / 요한복음 4:20-24 |

**예배!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심상을 깨끗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

**생각나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1. 당신이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 교육간사는 나누기 전에 함께 다 들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크게 말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뜻하는 영어단어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Worship : 예배라는 단어인 Worship은 Worth(가치) - ship(명사에 붙여 상태, 신분 등을 나타냄)이라는 복합어로 '어떤 분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worship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Service : 봉사와 섬김의 단어Service 의 어원은 slave(노예)입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종' 이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계급사회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연합한 사이로, 특권과 영광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했습니다. 비하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순복, 밀착되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으로 예배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말씀: 요한복음 4:20-24**

|  |
| --- |
| 신약성경(개역)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총 10개의 절에서 15번 사용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5개의 절에서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만큼 수적인 비중도 있지만 보다 더욱 본문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분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라는 땅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2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이 산이란 어떤 산이며,

왜 그들은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 4:20)  
  
▲교육간사가 위의 3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설명해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B.C.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포위당하고 이듬해 B.C.721년에 멸망당한 뒤, 그 곳에 이주해 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본래 그들만의 고유한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①사마리아 여인 질문은?  
  
그녀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던 "예배 장소"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②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린 산은?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 11:29)  
  
③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B.C.536년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지시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러한 성전 재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혼잡해진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한 성전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다방면으로 성전 건축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짓고 그 곳을 예배 장소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심 산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거룩한 곳이라고 고집했고, 그리심 산만이 축복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기에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2.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을 유일한 예배장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고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  |
| --- |
| **묵상** |
|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란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예배의 주체이자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

●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란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머지않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없애버리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과 지성소의 개념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인 성전의 개념을 종결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께 어느 장소든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곳이 어느 장소이든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이자 주인공은 누구?

어떠한 예배든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는 것이지 이교도들처럼 자신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즉 찬송, 기도, 헌물, 설교 등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이지, 예배자가 겨냥해야 할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으로 참된 예배란 예배가 끝난 후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되고 그 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3.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22절)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4:22)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이외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무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대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참된 신을 찾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분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 예배의 주체인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난 채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장소나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추구하는 예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찾으십니까?(23절)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속에서 살아온 우리나라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른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 의식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교통하는 것입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7)  
🞴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 108:1)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다양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제임스 E. 화이트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중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당에 가보니 좌석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예배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르간 반주자가 열심히 손을 놀려 연주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강당으로 걸어가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를 했고, 도중에 이런 저런 점들을 강조하느라 다양한 몸짓을 했지만, 천사를 따라 그 곳에 간 사람은 책장 넘기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천사를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진행 중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8)

|  |
| --- |
| **묵상** |
|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

▲교육간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를 설명한 후에 교육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듣도록 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몇 가지의 메시지를 건져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 한 가지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 11:4)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온갖 성의를 다하려는 정성스런 마음을 쏟는 자입니다. 마치 선물로 종이학 1000마리가 담긴 유리 상자를 이성친구에게 주면서 “이거 선물가게에서 산거야!”와 “이거 내가 한 마리씩 직접 접는 거야!” 중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후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5. 신령과 진정한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의미할까요? (참조. 로마서12:1)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영적인 예배 :   
  
"영"은 예배드리는 이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영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에 치우쳐서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자세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한없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예배 :   
  
진리의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짓이나 외식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합리화나 여러 사람들의 편리대로 만든 예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예배는 주일에 교회 와서 드리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업,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예배와 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  |
| --- |
| **묵상** |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발견한 제사의 비밀은 무엇이며**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시51:17)** |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게 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과에 대하여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오열하며 통회하는 참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금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동안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바리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인 깨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깃든 고백, 그 고백이 있는 마음의 제사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6. 예배를 통한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
| --- |
| **적용** |
|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간사는 미가 6:6-8 말씀을 먼저 읽고 풀이를 해주고 난 뒤에 위와 같은 질문을 교육생들에게 한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좋다. |

**은혜공감** **그 은혜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케 되려는 인간의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동시에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6-8**

▲ 교육간사는 교육 후에는 1주일 수료식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얘기한다. 또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꼭 참석할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기 전에 1과부터 4과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했는지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